한우

한우자조금, 한우 온라인 소비촉진 본격화
포털 '한우114'에 직거래장터 개설…
고급육 브랜드 할인판매

한우자조금이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본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최근 한우정보포털사이트 한우114 내에 한우직거래장터를 개설했다. 현재 5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고급 1++등급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직거래장터에 입점한 브랜드는 현재 한우협회 직영 매장인 한우먹는날을 비롯해 녹색한우조합공동법인의 녹색한우, 상주축협의 명실상감한우, 의성서부한우회 의성마늘소, 영주축협의 영주한우 등이다. 직거래장터에서는 1++등심의 경우 100g당 7천원선에서 1+는 6천300원대, 1+는 5천300원대 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05. 14]

한돈

대한민국 1호 동물복지 양돈장 탄생

대한민국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이 탄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5월 9일 전남 해남군 소재 양돈장 '강산이야기'를 제1호 동물복지 축산농장(돼지)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 받은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 '강산이야기'는 낮은 사육밀도 유지, 틀에 가두지 않고 충분한 운동공간과 깔짚 제공, 새끼돼지의 이빨 · 꼬리 자르지 않기 등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충족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 2012년 산란계농장에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양돈농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올해 말 육계, 2015년 한 · 육우, 젖소로 확대 추진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농장에서부터 운송, 도축까지 전반에 걸쳐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2014. 05. 14]

양계 양계협, 원로 양계인과의 간담회 개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5월 18일 협회 사무실에서 원로 양계인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양계업계 현황과 협회 운영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오봉국 고문(서울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원로 양계인들은 20대 회장을 맡게 된 오세을 회장에게 AI발생 등 어려운 여건에서 양계업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강조하고 3년 동안 양계인이 잘 살고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를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세을 회장은 "역대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대화와 소통으로 수급조절과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협회 및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 양계인들은 오봉국 고문을 비롯, 최준구 전회장, 장대석 전회장, 심준식 전부회장이 참석하였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기자 [2014. 04. 21]

낙농 육우 한국낙농육우협회, 제주도지회 창립총회 성료

한국낙농육우협회 제주도지회가 결성되었다. 지난 3월 28일(금) 제주축협 아라점 프라자 회의실에서 손정렬 회장 등 협회 임직원과 지역농가 및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지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손정렬 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주도지회 결성을 위해 애쓴 지역 낙농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제주도지회 결성으로 협회가 명실공히 전국을 아우르는 낙농가 대표조직으로 거

듭난 만큼, 전국의 모든 낙농육우농가가 더욱 하나로 결집하고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김원석(월평목장)씨가 초대 도지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었고, 부지회장에 남경우(선삼동목장), 감사에 고성남(천우목장), 김동석(희망목장), 총무(행정/재무)에 홍동석(지헌목장)/황호진(건준목장)씨가 각각 선임되었다. 김원석 초대 도지회장은 "제주도지회가 처음 출발하는 만큼 주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면서, "제주도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대변 활동과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도지회 운영회칙을 제정하고, 향후 도지회 활동방향과 국내 낙농육우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한편, 제주도에는 현재 35개 목장에서 연 17천여톤('13년기준)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다.

양봉

서울 강동구청, 도시 양봉학교 수료식 친환경 · 고부가가치 도시농업에 적합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5월 7일 2014 제1기 도시양봉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총 7차에 걸친 강의를 수료한 20명의 수강생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양봉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식 구청장은 "베스트셀러 총 · 균 · 쇠의 저자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후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두 가지로 바느질과 농사를 꼽았다. 그 만큼 농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도시에서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시양봉학교의 운영을 지원한 이선광 한국양봉협회 강동지부장은 "특히 양봉은 재미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이어서 도시인근에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에 매우 적합한 분야라 판단된다. 이번에 강의를 수료하신 분들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구의 도시양봉

학교는 1년에 4회 코스로 운영되며,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4. 05. 12]

사슴

사슴협, '안면농장' MOU
우수 유전자 공급…국내산 사슴 경쟁력 제고

(사)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는 지난 4월 29일 충남 안면도에 위치한 안면사슴농장에서 안면사슴농장 이봉식 대표와 2009년도 우수사슴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충현10호'(오바마)와 2010년도 우수사슴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구어1호'(아베코요테)와의 정액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녹용의 품질 및 생산성이 검증된 우수사슴 선발대회 대상수상 사슴의 정액으로 종자를 개량해서 전국 사슴사육농가에 공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협약 내용을 보면 국내 사슴산업의 발전과 우수사슴 혈통의 보급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사슴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유환 회장은 "이번 협약은 사슴협회와 양록인이 자체적으로 사슴의 개량화를 추진한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을 앞두고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슴업계의 이와 같은 자구적인 노력에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수사슴 정액 공급협약식 후 정유환 회장과 이봉식 대표가 협약서를 교환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사슴협회 신대복 사무총장, 안면사슴농장 이봉식 대표, 정유환 회장, 한국사슴협회 백충현 이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4. 05. 07]